

## ‘3연속 무승부’ 홍명보호, 6월 이라크 원정 부담 더 커졌다

3월 A매치 2경기 모두 1-1 무승부  
6차전부터 계산하면 3경기 연속  
월드컵 본선 가늠할 9차전 부담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큰 부담감을 안고 중동 원정길에 오르게 됐다.

홍명보호는 26일 현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4승4무의 무패를 달리고 있으나,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3월 A매치를 통해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지난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만전과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요르단전을 모두 승리했다면, 월드컵 본선행을 일찌감치 확정할 뉘, 편안한 마음으로 6월 A매치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오만전을 1-1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요르단전까지 1-1로 비겼다.

지난해 11월19일 원정으로 치른 팔레스타인과의 6차전까지 계산하면 3경기 연속 무승부다.

한국은 승점 9가 아닌 승점 3 획득에 그치면서 월드컵 조기 본선 진출은 멀어졌고, 요르단과 이라크에 추격을 허용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역대로 계산하면 12회.

지난 2022 카타르 대회 본선 당시 기록했던 10회 연속도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단 6개 국가밖에 해내지 못한 대기록이었다.

브라질(22회), 독일(18회), 이탈리아(14



25일 경기수원시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1-1로 무승부를 거둔 대한민국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회), 아르헨티나(13회), 스페인(12회) 등 전통적인 축구 강호들이었는데, 한국은 월드컵 연속 진출 부문에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 그 연속 기록을 '11'로 늘리기 위해선, 3월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6월에 집중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6월 A매치 첫 상대는 상위권을 경쟁하고 있는 이라크다.

또 한국이 유독 약했던 중동 원정이라는 점도 한국에는 악재다.

실상가상 3경기 연속 무승부로 흐름마저 하락세다. 이라크 원정 부담이 더 커진

상황.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핵심이자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재성도 요르단전 이후 "이라크 원정이 조금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어려운 상대도 아니다.

한국은 FIFA 랭킹 23위인 반면, 이라크는 56위다.

직전 맞대결이었던 지난해 10월 홈 경기에서도 3-2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 역시 10승12무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재성도 "각자 소속팀에 돌아가서 좋

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돌아올 것"이라며 "(중동 원정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며 이라크전 승리를 점조준했다.

한편 한국은 6월5일 이라크를 상대한 뒤, 10일 한국으로 장소를 옮겨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은 각 조 1-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3-4위는 본선 티켓을 걸고 별도의 경기를 더 진행한다. /뉴스시스



## 구례군청 씨름단, 전국 최강 씨름단 위상 입증

매화급 선채림, 국화급 엄하진 선수 매화급·국화급 장사 등극

구례군청 씨름단 선채림, 엄하진 선수가 '2025년 제39회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강 씨름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열린 '2025년 제39회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선채림 선수가 매화급에서, 엄하진 선수가 국화급에서 우승하며 정상에 올랐다. 또한 국화급 장정인 선수가 3위를 기록하는 등 저력을 과시했다.

매화급 결승전에 오른 선채림 선수는 거제 이연우 선수를 상대로 밀어치기와 배지기 기술을 이용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0 승리를 거두고 2025년 첫 우승 타이틀을 따냈다.

경기 후 선채림 선수는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노력으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3-4위는 본선 티켓을 걸고 별도의 경기를 더 진행한다. /뉴스시스

국화급 결승에서는 엄하진 선수가 거제시청 서민희 선수를 맞아 잡채기와 되치기를 성공시키며 2:0 완승하고 국화장사로 등극했다.

엄하진 선수는 "이번 우승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같은 국화급에서 경쟁한 장정인 선수는 서민희 선수에게 되치기와 잡채기로 2:0 패배를 당하며 아쉽게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청 씨름단이 전국대회에서 또다시 훌륭한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2025년도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전국 최고의 씨름단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흥군(군수 공영민)에 2023년에 문을 연 차범근 축구교실이 지난 26일 고흥생활체육공원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차범근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고흥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보성, 순천, 여수 등 인근지역 학생들까지 총 65명이 신청했다.

올해 축구교실은 매주 수요일 주 1회

## 고흥군, 2025년 차범근축구교실 개강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

진행되며,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3개 팀씩 6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7월 여름 페스티벌 후, 휴서기(7-8월)에는 휴강하며, 11월까지 총 24회의 수업이 전문코치의 지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

차범근 감독은 "축구교실의 목표는 선

수 육성이 아니라 축구를 즐기며 스포츠 정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흥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축구교실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자부심이 있더라

주 2회 이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축구교실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흥군은 차범근축구교실을 통해 지역 유소년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축구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 유소년 축구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화성FC 차두리 감독이 고흥FC(대서중학교) 선수들에게 축구화 35켤레를 기부하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감동을 더 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화순군체육회장배·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 성황리 마무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하니움 실내 체육관과 이용대체육관에서 '2025년 화순군체육회장배 및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체육회(회장 정형찬)가 주최하고, 화순군배드민턴협회(협회장 김순철)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2,0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출전하여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펼쳤다.

22일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호범 화순 부군수, 조명순 군의원, 류종욱 군의원과 임지락 도의원, 정형찬 화순군 체육회장,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해 대

회에 열기를 더했다.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는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 동안 화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개미산 전망대, 꽃강길 음악분수, 남산 빛공원도 한 번 방문하셔서 화순의 화려한 야간경관을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란다"며, "배드민턴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22일 꽃강길 일원에서 개최된 맹환금배 경기 대회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여 푸짐한 경품 추첨과 함께 지역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에 활력을 더하며 성황을 이뤘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